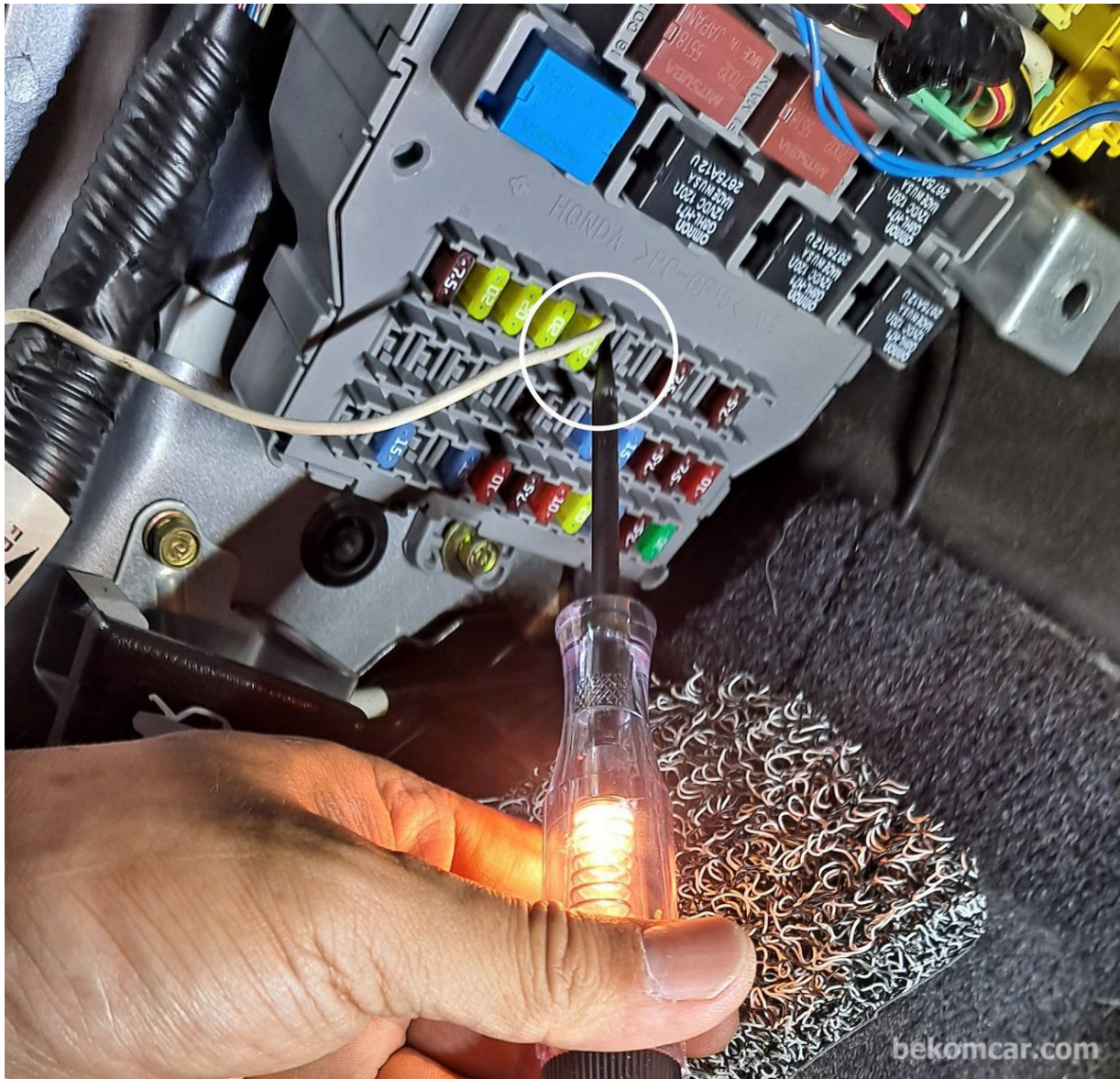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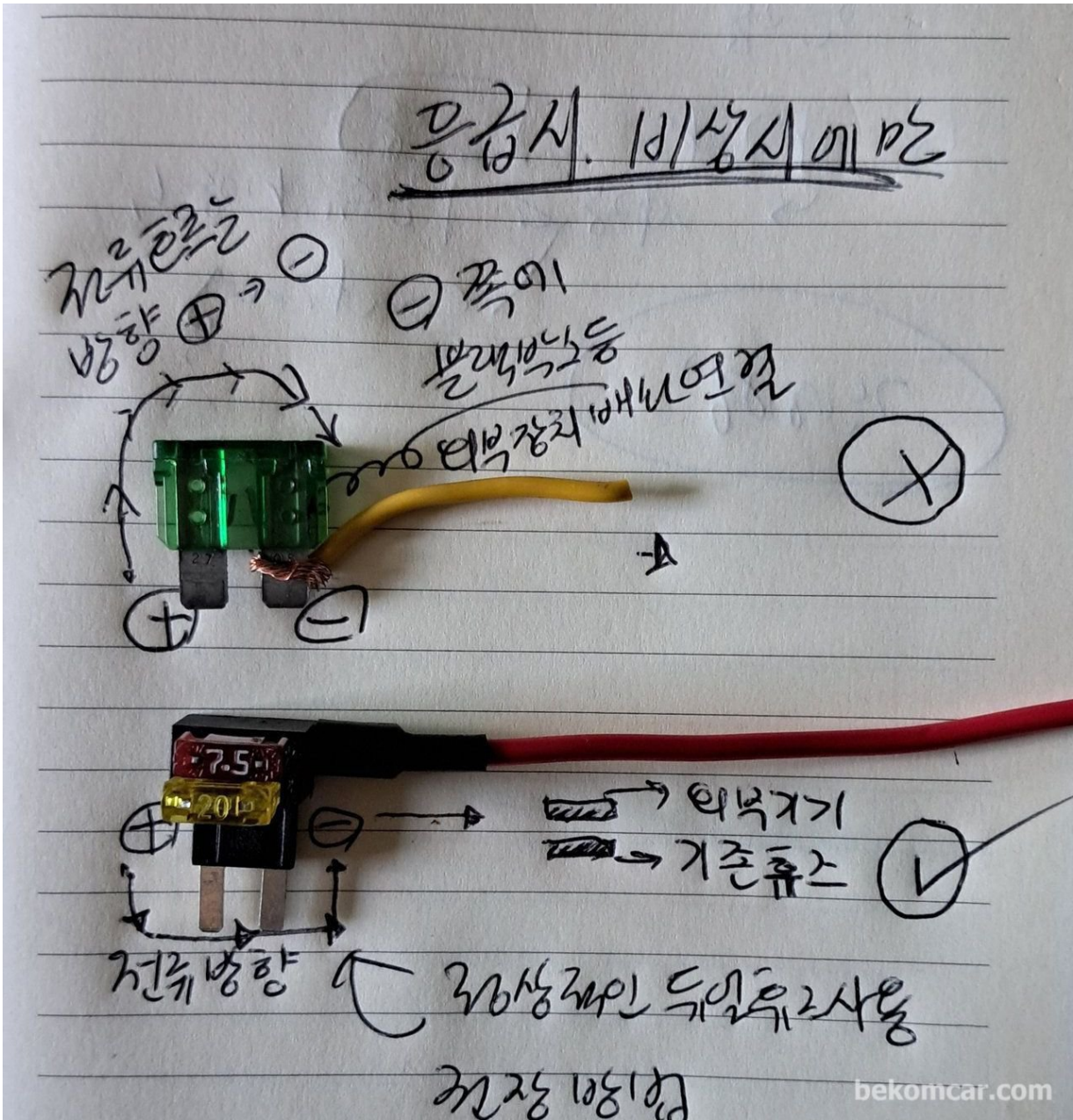


블랙박스 설치시 상시전원 과 ACC 가 있는데 휴즈박스 어디에 연결해야 하나요? 테스터기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https://bekomcar.com/ko/qa/1s7m9gc5y/>



통상적으로 블랙박스는 300mA (0.3A) 이하의 전류를 소모한다. 휴즈박스에 전기가 들어와서 나가는곳 휴즈 다리가 다르니 꼭 체크하여 설치한다. 휴즈 다리에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듀얼휴즈 사용이 권장된다.



가장 권장되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등 외부 전원기기 설치시 퓨즈사용 방법이다. 듀얼퓨즈 사용이 권장되고 퓨즈다리에 선을 연결시에는 전류흐르는 방향을 잘 체크해야 한다.

### 블랙박스 설치시 주의점

통상적으로 블랙박스는 300mA (0.3A) 이하의 전류를 소모한다. 설치하는 특정 블랙박스의 사용전류는 다를수 있기때문에 꼭 확인하여 적절한 퓨즈용량을 사용한다. 만약 20A 퓨즈를 사용하면 사실상 퓨즈의 의미가 없다. 블랙박스별 자체 퓨즈를 가지고 있는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꼭 설치할 블랙박스 사양부터 체크한다.

## 멀티미터등 장비는 필수

만약 장비등이 없고 전기를 잘 모르면 전문가에 의뢰하는것이 좋다. 전기는 아마추어가 작업하는경우 추후 여러가지 예상치 못 한 이슈가 생길수 있기때문이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기작업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블랙박스등 외부기기 휴즈박스 작업시 팁

대부분의 차량휴즈 박스에는 항상 여분의 휴즈슬롯이 있다. 그리고 국가별 옵션별 차량 트림에 따라서 휴즈가 사용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쉐르프 이다. 어떤 차량은 쉐르프가 없으면 그 차량은 쉐르프 휴즈를 사용하지 않지만 회로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용하지 않은 여분의 휴즈슬롯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좋다.

다음으로는 미션, 엔진, ABS모듈, 연료펌프, 에어백등 민감한 휴즈에는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리스크때문이다. 그래서 쉐르프나, 전동외자 등 안전과 관련이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 휴즈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휴즈용량을 꼭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예를들어 블랙박스의 경우 대부분 200~400mA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20A 휴즈를 사용하는것보다는 3A 혹 7.5A등을 사용하는것이 좋다.

몇 천원이면 구매가능한 듀얼휴즈를 사용한다. 더 안전하고 작업도 더 편해진다. 마찬가지로 듀얼휴즈도 방향성이 있으니 꼽을때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 주어야 한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지만 하나만 더 하면 배선에 라벨을 붙여주면 다음작업자가 무척 편할것이다. 선이 많고 섞여있는데 라벨이 없으면 해갈린다.

## 전기작업은 차분히 제대로 하는것이 중요

특히 최근차량은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항상 외부기기 전기.전자 장치 설치시엔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업한다. 전기는 2번기회를 주지 않는다. 순식간에 부품고장뿐아니라 화재위험까지 있기때문이다.

## 블랙박스 설치시 참고자료 링크

1. 차량내 블랙박스 외부기기등 연결시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일까요? 납 땀은 힘들고 쉽게 접촉이 불량되어 전기적 고장이 생길수 있다고 하네요.
2. 블랙박스 와 보조배터리 설치시 휴즈어디에 연결해야 하나요. 차량 화재도 있어 걱정스럽네요.
3. 블랙박스 선이 휴즈박스의 휴즈에 배선연결이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4. 휴즈박스에 연결된 노란색 배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 블랙박스 카메라를 24시간 녹화하면 배터리가 방전되나요?

## Comments

너무 많은 질문글이 올라오는 블랙박스 설치시 휴즈 선택 및 연결방식이다. 기본 상식이지만 블랙박스등 외부 전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된 경우는 기억에 거의 없다. .

2025년 6월 20일 9:45 오전, #C7,094, (@sunjoo.moon)

글쓴이 ● 문선주 , 편집일: 2025년 6월 20일 9:39 오전

**❗면책조항!** 모든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 작업 전에 해당 차량의 정비매뉴얼 지침을 지켜야 한다. 베콤 카는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홈페이지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한다.